

◆ Schedule ◆

(Tentative schedule)

	1 ST Day	2 nd Day	3 rd Day
AM			
7:00			
8:00			기상
9:00		출	아침 식사
10:00			First Church of Northampton & David Brainerd 묘지 방문
11:00		발	Williams College 방문 (Haystack Monument)
12:00			
PM	Syracuse 도착 및		
1:00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이동 및 점심 식사
2:00			
3:00	Lodi Street Tour	Northfield campus tour	이동 The First Congregational Church of Stockbridge 방문
4:00			
5:00	세미나 1		이동
6:00	저녁식사 및 교회로 이동	이동 및 저녁 식사	
7:00			저녁 식사 후 귀가 (Albany)
8:00	세미나 2		
9:00	Reflection	세미나 "부흥의 발자취를 찾 아서"	
10:00			
11:00	숙소로 이동	휴식 및 취침	

◆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흥의 역사에 관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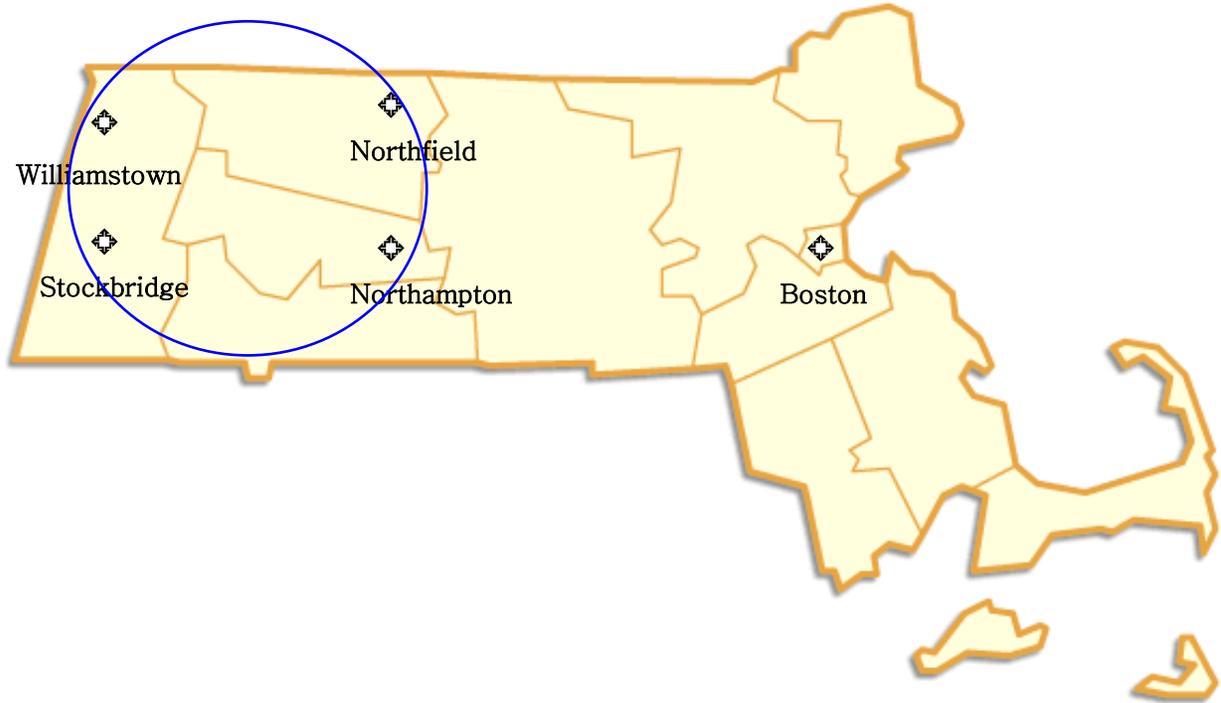


Figure 1. 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지도.

- ▶ **Northampton:** 1734 년 Northampton 의 First Church 의 담임목사인 Jonathan Edwards 를 중심으로 한 제 1 차 영적대각성의 시발점인 된 지역.
- ▶ **Stockbridge:** 영적대각성 이후 Jonathan Edwards 가 Northampton 교회에서 축출되자 모학, 모히건 인디언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1751-1757) 다문화권 선교의 현장.
- ▶ **Williamstown:** 2 차 영적대각성 기간 중 Yale, Dartmouth 대학을 중심으로한 대학에서의 영적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Williams 대학에서 미국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Haystack Prayer Movement (1806)가 일어난 현장.
- ▶ **Northfield:** 3 차 영적대각성으로 미국 전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에도 부흥의 물결을 일으킨 19 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Dwight Lyman Moody (1837-1899)가 태어나고 죽었으며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1886)가 태동한 곳으로 세계 기독교의 지도를 새로 만든 근원지.

이 네 지역이 모두 서부 Massachusetts 주의 반경 30 마일 이내에 위치해 있음.

1. 1 차 영적대각성 운동(Great Awakening, 1730's, 1740's)과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목사(1740's), Northampton, Massachusetts

Jonathan Edwards 는 그의 뛰어난 지성과 영적 감찰력으로 1 차 영적대각성(Great Awakening) 기간 중 신대륙 미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부흥사 중 한명일 뿐 아니라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최초의 철학적 신학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Connecticut 의 East Windsor 에서 목사 Timothy Edwards 와 Esther Stoddard 의 11 명의 자녀 중 다섯째이자 유일한 아들로 태어난 그는 Yale 대학을 17 살에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동 대학 신학원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였다. 잠시 뉴욕의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한 그는 다시 Yale 로 돌아와 교수로 2 년간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후 외할아버지 Solomon Stoddard 가 목회자로 있었으며 당시 Boston 외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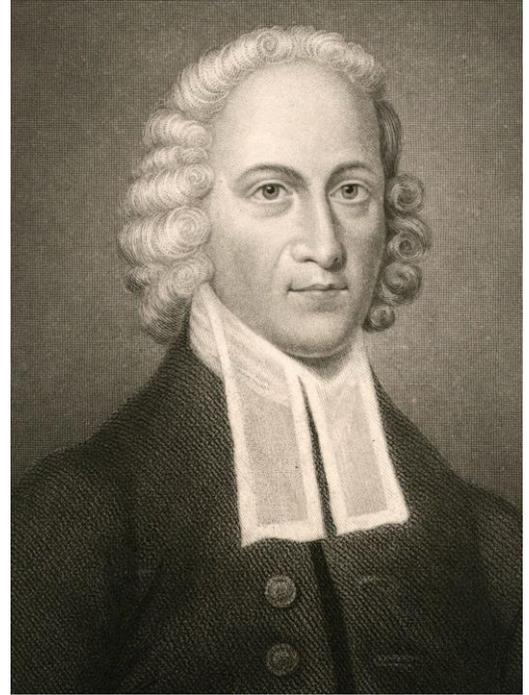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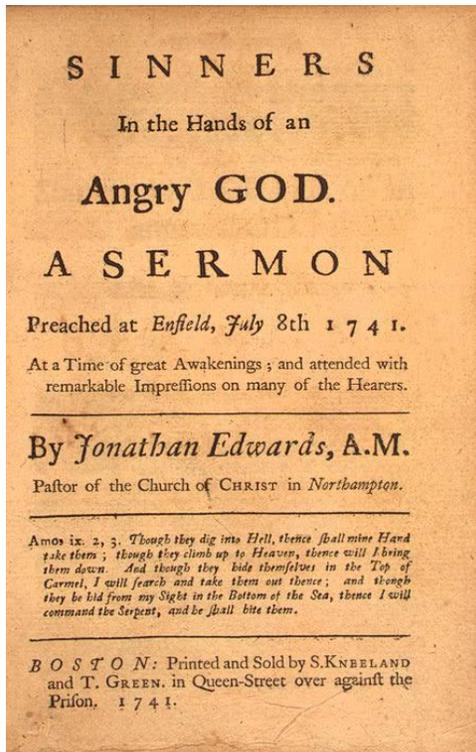


Figure 1. Jonathan Edwards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알려진 Northampton Congregational Church (MA)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시무하였고, Yale 대학교 창립자인 James Pierpont 의 딸 Sarah 와 결혼한 후 1729 년 외할아버지를 이어 담임 목사가 되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734-1735 년 Northampton 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1734 년 시작한 설교시리즈 '의화(義化: Justification by faith)'에 의해서 Northampton 지역을 중심으로 한 Connecticut Valley 지역에 부흥(Revival)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초 Northampton 교회 교인 중 6 명이 개심(Conversion)하기 시작하면서 매주 30 여명의 사람들이 개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100 mile(16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Edwards 의 설교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의 명성은 England 와 Scotland 까지 미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1739-1740 년 기간 동안 Edwards 의 영적 지도력 하에 나중에 영적대각성(The Great Awakening)으로 불리워지는 부흥운동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1741 년 그가 Enfield, CT 에서 시작한 그의 가장 유명한 설교 중의 하나인 "성난 하나님의 손의 붙들린 죄인들(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을 시작하였는데, Edwards 는 통상의 부흥사들처럼 크고 격렬한 목소리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단 위의 흔들리는 불빛 아래 단조로운 목소리로 원고를 보고 읽어가는 형태의 설교를 했고, 그 목소리 또한 오히려 소란스런 청중들에게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조용하였다. 하지만, 첫 설교가 시작되자 많은 청중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설교 도중 공개적으로 소리내어 우는가 하면 혼미하여 기절하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등 처음부터 엄청난 반향을 가져왔다.

Figure 2.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설교의 원본

당시 1738년 미국 Savannah, GA로 건너온 영국의 부흥 목사 George Whitefield가 Georgia를 중심으로 New England까지 전국 순회 부흥회를 하면서 '영적대각성' 운동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다. 이는 1730-1740년대 식민지 개신교도들의 영적인 대각성을 촉구하는 최초의 운동이자 신대륙 미국의 전역을 움직이는 최초의 대사건으로 미국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단합케 하는 최초의 사회적인 운동이기도 하였다. John Armstrong은 그의 책 'Five Great Evangelists'에서 Whitefield를 가리켜 "오늘날까지 복음적 기독교에 깊은 영향을 미친 그의 공로로 인하여 18세기 종교의 한 장을 장식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복음전도자이며 영어권 부흥사 중 그만큼 복음을 효과적이고 결단력있게 설교한 목사는 없다"라고 극찬하였다. Edwards가 깊은 영성과 신학적인 고찰에 의한 조용하게 읽어가는 형식의 설교를 하였다면, Whitefield는 지금과 같은 전자 장비가 없이 수천 명의 청중들의 심금을 울려내는 크고 우렁찬 목소리의 설교로 유명했고, 또한 신문 등 대중매체를 잘 활용하여 18세기의 가장 잘 알려진 유명인사 중의 한 명이기도 했다.

한편 Edwards는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Northampton 교회에서 전임자인 외할아버지 Stoddard 목사와는 다른 엄격한 입교식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즉,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종교적 체험에 의거하여 본인의 구원의 신앙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만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논란 끝에 교회의 투표에 의해 Edwards는 한 표 차이로 목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1750).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목사, 신학자, 학자로서의 Edwards 의 절정기에 그를 인디언 선교 개척이라는 새로운 선교사역에 사용하시고자 하는 섭리였다.

그의 대각성 기간 동안의 업적과 뛰어난 그의 부흥 설교사의 삶에 비해, Yale 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 받은 후 30 여년의 삶 중 그의 마지막 인생의 7 년을 서부 Massachusetts 에 있는 Stockbridge 에서 지내면서 선교사로서 인디언 선교의 개척자적 삶을 산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가 Northampton 교회에서 축출되고 난 뒤 미국과 영국의 많은 교회에서 그를 청빙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는 이를 모두 거절하고 Stockbridge 의 인디언 부족 마을에서 150 여명의 모히간 및 모학 인디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살아갔다(1751-1757). 이는 지역이나 거리와 상관없이 그가 언어와 종족이 다른 다문화권(multi-cultural) 또는 언어 문화권이 다른 자국내의 선교인 Home Mission 에 해당되는 선교사역에 헌신함으로써 약 200 년 후 선교사 Donald McGavran 의 소위 Ethnolinguistic and Sociocultural 로 구분되는 세계 선교의 3 세대에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s)에 대한 선구자적 선교사(Frontier missionary) 역할을 한 것이다.

그의 가족들은 1670 년대 'King Philip 의 전쟁'으로 인디언 부족 마을이 폐허가 된 이후 Stockbridge 선교사역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dwards 는 그의 외할아버지 Solomon Stoddard 목사가 "미국 식민 전쟁과 분쟁들은 1629 년 Massachusetts Bay 헌장에 쓰여 있는 바 미국 식민지 정부의 인디언에 대한 약속(복음화 및 선교)을 이행하지 않아 하나님에 의하여 벌을 받은 결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시각을 가졌다. Stoddard 는 그의 1732 년 "인디언을 개종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나라에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설교를 통하여 New England 지방의 식민지 개척자들을 책망해 왔다. 따라서 Edwards 의 삼촌이며 Solomon Stoddard 의 아들인 John Stoddard 는 Massachusetts 주정부와 Housatonic-Mahican 인디언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1724 년 이 인디언 부족들의 거주 지역을 구입하였고, 10 년 후에 Stockbridge 라고 알려진 선교 지역의 설립을 가져왔다.

Edwards 가 Stockbridge 로 이주하여 많은 시간을 연구하는데 사용하는 동안 그는 이곳의 인디언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는 인디언 학교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과의 교리문답 등을 통하여 기계적인 '암기식'이 아니라 '서술식'의 교수방법을 강조하는 혁신적 교육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조수이자 통역자인 John Wauwaumpequonaunt 의 도움을 받아 목사로서 정기적인 설교와 예배를 거행하는 한편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 이곳 인디언 정착촌이 백인 식민 개척자들에 의해서 피해나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 Stockbridge 에서의 그의 선교사역은 편집자로서의 일반 선교사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 년간의 짧지만 불꽃처럼 살다가 결핵으로 죽은 인디언 부족 마을의 선교사 'David Brainerd 의 일기(1749)'를 정리해서 출판한 것은 Edwards 의 또 다른 큰 공적 중 하나이다. "David Brainerd 의 생애"라고 출간된 이 책은 19 세기 새롭게 조직되는 세계선교 운동역사에 있어 많은 선교사들에게 영적 감동과 영향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영적인 큰 시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Self-denying) 선교사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Edwards 는 이 인디언 선교사역 기간(1750-1757) 동안 *Freedom of the Will* (1754), *Original Sin* (1758), *End of Creation*, and *True Virtue* (1765)라는 그의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걸작품들을 남기게 된다.



Figure 3. David Brainerd 와 그의 묘비



Edwards 가 초야에 문혀 인디언 선교에 헌신하고 주옥같은 신학 작품을 남기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였지만 사위 Arron Burr 의 뒤를 이어 the College of New Jersey (Princeton 대학 전신)에 3 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비록 취임 후 5 주 만에 천연두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지만 그가 선교사로서의 직분을 마치고 이 대학에 총장으로 취임한 것은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를 이어 후에 Princeton 대학교가 낳은 SVM 탄생의 핵심 인물들인 Luther Wishard, Robert Wilder, John Forman, Robert Speer 와 같은 수많은 Princeton 출신 세계선교의 선구자들의 명맥이 이어졌다. 또한 이 대학은 Osak Armstrong, Robert Knox, William Kerr, Henry McCallie, Stacy Roberts 등 1900년대 초반 대거 조선으로 입국한 SVM 출신 선교사들을 비롯하여, 1세대 SVM 출신으로 조선에 선교사로 온 방위량(William N. Baird) 선교사의 아들 Richard, William(평양에서 출생)도 모두 Princeton 을 졸업하고 대를 이어 한국으로 선교사로 입국하였고, 같은 SVM 세대 마포삼열(Samuel A Moffett)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삼열(Samuel H Moffett)은 Princeton 대학교의 총장 후보로 추대된 바 있고 후에 Princeton 신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은퇴한 바 있다.

Jonathan Edwards는 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11명의 자녀(3명의 아들과 8명의 딸)를 두었는데, 3명의 아들은 모두 Princeton 대학을 졸업하였고 그중 Jonathan Edwards Jr.는 Union College의 총장이 되었다. 3명의 딸은 Yale 졸업생과 결혼했는데 사위 중 한 명은 Princeton 대학 총장 Aaron Burr 목사이며 이들 부부에게서 난 Aaron Burr Jr.는 나중에 미국 부대통령이 된다. 또 다른 사위가 Timothy Dwight인데 이 부부에게 추후 세 명의 Yale 대학 총장이 배출된다. Jonathan Edwards의 외손자이자 Timothy Dwight 부부의 아들인 Timothy Dwight Jr.는 Yale 대학 총장으로서 2차 영적대각성 기간 중 대학의 영적각성 운동의 중심이 되어 미국이 최초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기반을 닦는 역할을 하게 된다.



Figure 4. Jonathan Edwards 가 시무할 무렵의 First (Congregational) Church (Northampton)와 지금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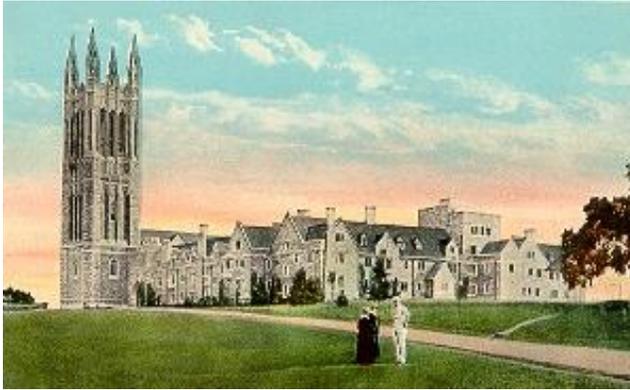


Figure 5.

(좌) Jonathan Edwards 가 초대 총장으로 선임되었던 College of New Jersey (Princeton 대학교 전신) 당시 전경.
 (우) Jonathan Edwards 가 Northampton 의 교회에서 축출되고 난 뒤 Stockbridge 에서 인디언 부족을 선교하던 교회의 최근 모습.

2. 2 차 영적대각성 운동(1790-1840)과 대학의 영적각성(Collegiate Awakenings 1800's-1815), 그리고 Haystack Prayer Movement (1806), Williams College, Williamstown, MA

(1) Dwight Timothy

Jonathan Edwards 와 영국에서 건너온 부흥사 George Whitfield 로 대표되는 1 차 영적대각성의 부흥의 물결이 미국 전역을 휩쓴 지 60 년도 되지 못해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영적으로 타락화되었다.

(Deism) 이를 타파하고자 Yale 대학과 Dartmouth 대학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영적대각성 운동이 바로 2 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다.

이 영적 각성 기간 중 New England 의 큰 축이었던 Yale 대학에서 1802, 1808, 1813, 1815 년에 걸쳐 각성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중심에 Yale 대학교의 총장 Dwight Timothy 가 있었다.



Figure 6. Dwight Timothy (1752-1817).

그는 Jonathan Edwards 의 손자(셋째 딸 Mary Edwards Timothy)로 Northampton 에서 태어나 그의 외할아버지처럼 Yale 을 17 살에 졸업하고 또 19 살에 대학원을 마치고 외할아버지가 초대 총장이었던 Princeton 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43 세의 나이로 Yale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다. 그의 설교와 저서로 당시 프랑스의 理神論(Deism)적 불신앙과 무신론, Unitarian 등의 반기독교적 흐름을 차단하고자 이루었던 7 년 간의 꾸준한 설교와 가르침으로 campus 에 부흥이 오기 시작하면서 230 명의 학생 중 1/3 의 학생들이 개심을 하였고 이중 30 여명이 목사가 되었다. 또 1805 년 Harvard 의 신학대학 학장과 총장이 Unitarian 으로 선임이 되면서 Harvard 를 비롯한 대학교들이 급속하게 세속화되자, 1809 년 보스톤 지역에 신학교인 Andover Seminary 를 설립하여 대응하기도 했다. 이 신학교는 Haystack Prayer Movement 로 인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해외선교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해외선교 운동을 주도한 선교 단체인 **"The Society of Brethren"**이 설립된 신학교이다. 또한 Dwight Timothy 는 한국의 교회에도 잘 알려진 식사 기도인 "I Love Thy Kingdom, Lord"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의 작사자이기도 하다.

(2) Haystack Prayer Movement (Samuel Mills)



Figure 7. Samuel Mills

영적각성 기간 중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 어머니가 서원 기도했던 Samuel Mills(1783-1818)는 Williamstown (MA)에 있는 Williams College 에서 친구들과 함께 미국이 해외선교를 통해 미지의 땅인 동방으로 복음이 전파할 수 있도록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19 세에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코네티컷 회중 교회 목사인 그의 아버지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은 없다" 고 말하였다.

Mills 와 4 명의 친구 (James Richards, Frances L. Robbins, Harvey Loomis, and Byram Green)들은 1806 년 8 월 어느 토요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선교에 대한 기도 모임을 마치고 오던 중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게 되자, 근처에 있던 건초더미(Haystack) 밑으로 숨어 비를 피하게 되었다. 여기서 선교의 열정을 담은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Mills 는 건초더미 아래서 친구들에게 선교가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아시아와 이슬람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며, 이어서 이들은 The Brethren 이라는 세계선교의 열정을



구현할 수 있는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였다. 이 조직이 바로 Andover 신학교의 해외선교단체인 'The Society of Brethren'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기도 모임의 결과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라는 좌우명을 만들기도 했다. 1810년에는 Williams College 의 Mills 와 Richards, Brown 대학 출신인 Adoniram Judson, Samuel Newall (Harvard), Samuel Nott, Jr. (Union College)가 Jonathan Edwards 의 손자 Dwight Timothy 예일대 총장이 세운 Andover 신학원에 입학하면서 이들도 세계 선교를 위한 결사 조직 The Brethren 에 합류하여 본격적인 선교의 꿈을 구현해 나간다.

Figure 8. Haystack Prayer Movement(1806)가 일어난 Williams College (MA)의 Mission Park에 있는 기념비.

이들은 이어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Bradford Congregation Church 에 해외선교를 시작하자고 요청했고 그해 Mills 는 미국 최초의 선교 기관인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ABCFM)의 설립을 도와서 1812 년 Adoniram Judson, Samuel Newell, Samuel Nott, Jr.와 그들의 부인들을 함께 최초의 미국 출신 해외 선교사로 파송했고 1821 년까지 약 76 명의 선교사가 추가로 파송되었다.



Figure 9. 1812년 2월 8일, ABCFM이 Tabernacle Church, Salem (MA)에서 Adoniram Judson 목사 부부, Samuel Newall 목사 부부, Samuel Nott 목사 부부, Williams College출신 Gordan Hall, Luther Rice 목사 등이 최초 미국 선교사 해외 파송식(인도 캘커타)에서 안수를 받는 장면이다.

이들 중 Judson 선교사 부부는 같은 달 19일에 인도로 향해하였으나 선교지에 있는 동인도 회사에서 입국을 거부당하여 다시 버마의 랑군으로 옮겨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또한 Samuel Mills 는 이후 미국의 제 2 차 영적대각성 New England 지역 핵심단체인 American Bible Society (1816)의 설립과 많은 교단의 선교단체에 공헌을 하였고 후에는 자신도 선교사로 떠났다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 항해 길에 35 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한편 앞에 언급한 Jonathan Edwards 의 손자가 세운 Andover Seminary 에 1810 년 조직되었던 The Brethren 은 추후 60 년간 이 학교의 해외선교의 중심이 되어 372 명이 이 모임에 참여하여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고, 이 중 217 명이 해외 선교사로 사역하게 된다. 그리고 SVM 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Robert Wilder 의 아버지인 Royal Wilder 가 바로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The Brethren 출신으로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며, 나중에 Princeton 대학교의 Princeton Missionary Review 지를 만들어 아들 Robert 와 함께 Princeton 대학교의 해외선교의 불을 당기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Robert Wilder 는 DL Moody 의 Northfield Conference 에서 Student Volunteer Movement 태동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Jonathan Edwards – Dwight Timothy – Samuel Mills 로 이어지는 서부 Massachusetts 지역의 영적부흥과 해외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 고리의 한 축을 이루면서 그 축복의 연결 고리가 Northfield 로 오게 된다.

(3) Charles G. Finney

지난 2007 년부터 New York Bible Conference 가 열리고 있는 Upstate NY 지역은 미국의 제 2 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며, 그 부흥의 역사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찰스 피니 (Charles Finney, 1792-1876)이다. 그는 “현대 부흥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는데, 변호사이자 목사, 신학교수였던 피니는 일생동안 50 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었던 19 세기 신앙부흥 운동의 중심 인물이다. 1792 년 코네티컷 주 워렌(Warren)에서 태어난 그는 두살 때 부모님을 따라 Utica 로 이주했다가 다시 Ontario 호수 동쪽의 Henderson 으로 이주하였다. 별다른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과 리더십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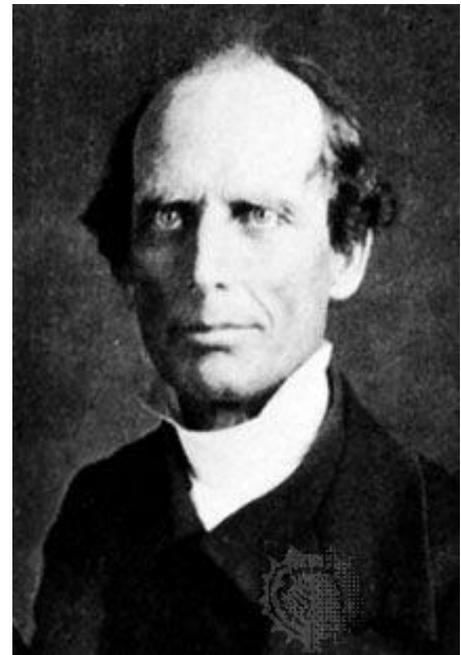


Figure 10. Charles Finney

유명했다고 한다. 1821년 29세 때 아담스의 법률 사무소 견습생으로 일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회심 후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1824년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Upstate NY의 수많은 도시들(Troy, Antwerp, Rome, Binghamton, Utica, Auburn, Rochester, Buffalo 등)을 돌면서 수많은 회심자들을 일으켰는데, 그 역사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 자신이 "burnt-over district" (성령의 불길이 너무 뜨거워 완전히 타버린 지역이라는 뜻)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부흥의 역사를 묘사하였다. 그 중에서도 로체스터의 부흥이 가장 뜨거웠으며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났기에 오늘날 이를 가리켜 로체스터 대부흥(The Great Revival of Rochester)이라고 부른다.

로체스터의 대부흥은 한 귀부인과의 조용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피니의 부흥 사역이 지역의 사교계 행사를 망친다며 피니를 책망하던 그녀에게 피니는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읽어주었고 그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 때 그 부인은 그 자리에서 엎어져 통곡을 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이후 로체스터 상류 사회에 회개의 물결이 엄청난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제조업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던 신도시였던 로체스터의 중하층민들 (공장노무자, 상점상인, 농부 등)이 피니의 강력한 메시지에 감화되어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층을 초월한 대각성 운동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처럼 계층을 초월한 부흥의 역사로 인해 로체스터에는 놀라운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들이 야기되었는데,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신앙이 가정과 일터, 길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의 소재가 되었으며, 술집과 극장들은 문을 닫았고, 교회는 성도들로 넘쳐났다. 또 범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법정은 할 일이 없었고, 교도소는 그 후로도 수년간 비어있었다고 한다. 1820년부터 1840년까지 로체스터의 전체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람들의 생활습관과 가치관이 변화한 탓에 경제적 풍요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더하여 주목할 만한 가장 중요한 부흥의 결과 중 하나는 바로 노예해방 운동이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된 업스테이트 주민들의 눈에 노예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악(evil)으로 비춰지게 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로체스터를 비롯한 유틀카, 어번 등은 수많은 노예해방 운동가들, 단체들, 언론의 본거지가 되었고, 이들은 결국 노예 해방론자였던 링컨을 대통령 후보로 세운 공화당의 핵심 정치 세력이 되었다.

이처럼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찰스피니의 부흥은 물론 그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와 동역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벨 클레리 (Abel Clary)였다. 그 자신 역시 뛰어난 설교가였던 클레리는 피니가 사역하는 곳마다 따라 다니며 집회가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았던 그의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찰스 피니의 사역을 함께

도왔다고 한다. 피니는 클레리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일기장을 보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자서전에서 이러한 중보자들의 헌신이 없이는 자신의 부흥 사역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이후 그는 뉴욕시 채텀 스트리트 채플, 브로드웨이 성막교회 등을 섬겼고, 오벌린 대학 신학 교수 및 총장을 역임하였다.

3. 3 차 영적대각성 운동(1850-1900)과 D.L. Moody, 학생자원운동(SVM)

1. D. L. Moody (1837-1899)



Figure 11. Dwight L. Moody

- 1837 년 Northfield, MA 에서 여섯번째 자녀로 출생
- 4 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초등학교 5 학년을 중퇴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함
- 1855 년 17 세 때 주일성수를 한다는 조건으로 보스톤 삼촌의 신발가게에서 일을 시작함
- 18 세때, 당시 출석하던 Congregational Church of Mount Vernon 의 주일학교 교사 Edward Kimball 에 의해 예수님을 영접함
- 시카고로 이주하여 잡화점을 운영하며 주일학교를 섬기다가 1860 년 번창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교파를 초월한 복음전도에 힘을 쏟음

- 1867 년 영국 방문에서 죠지 물러, 찰스 스펀전, 헨리 발리 목사를 만남
 - 죠지 물러와의 만남을 통해 “무디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디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에 감사드림
 - 찰스 스펀전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보잘것 없음과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고백함

- 헨리 발리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게 됨
- 영국에서 돌아와 헨리 무어하우스의 요한복음 3:16 설교를 듣게 됨
 - 말씀의 무한한 깊이를 알게 되었고, 모든 설교의 중심을 성경에 두고 성경을 연구하게 됨
 -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됨으로써 이때까지 심판, 죄, 지옥에 대해 주로 설교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죄인들이 돌아올 것을 설교하기 시작함
- Northfield 로 돌아와 1879 년 Northfield Seminary for Young Ladies 를 세움
- 1880 년부터 시작된 Northfield Bible Conference 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함
- 1881 년 Mount Hermon for Boys School 을 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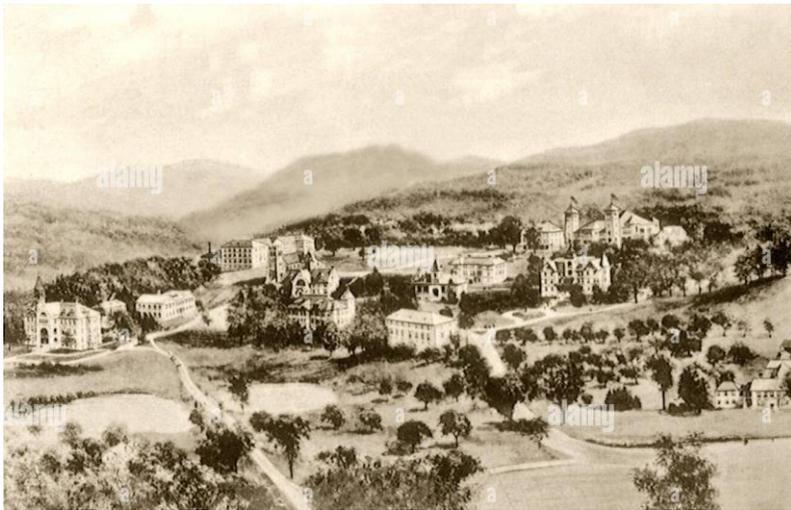


Figure 12. Norfield Campus

- 1882 년 다시 영국을 방문함
- 1883 년 영국 집회를 통해 변화받고 헌신한 Cambridge Seven 이 탄생함
 - Cambridge Seven: C. T. Studd, M. Beauchamp, S. P. Smith, A. T. Podhill-Turner, D. E. Hoste, C. H. Polhill-Turner, W. W. Cassels)
 - 부와 명예가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중국 등지에서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바침
 - C. T. Studd 를 통해 Worldwide Evangelization Crusade: WEC 이 창설됨
- 1899 년 자신의 고향 Northfield 에서 소천함



Figure 13. Cambridge Seven

2. Northfield Bible Conference와 Student Volunteer Movement (SVM)

- 1) 1880 년 제 1 회 Northfield Bible Conference 가 열림 (미국 각 지역 대표 및 학생대표 350 여명 참석)
- 2) 1881 년 제 2 회 Northfield Bible Conference 가 열림 (900 명 참석)
- 3) 1885 년 제 3 회 Northfield Bible Conference 가 열림
 - 무디의 초청으로 함께 온 J. K. E Studd (C. T. Studd 의 형)가 주강사로 참석함.

- 세계선교헌장을 제정: “우리세대에 세계 복음화를(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가 후에 SVM 의 표어가 됨
- J. K. E Studd 가 1886 년 미국의 대학들을 방문하여 강의함: Cornell 에 재학중이던 John Mott(당시 YMCA 간사)는 그의 강연에 큰 영향을 받고 제 4 회 Northfield Bible Conference 에 참석 → 이듬해 Mount Hermon 100 이 되어 SVM 에 큰 공헌을 함



Figure 14. Northfield Bible Conference

- 4) 1886 년 제 4 회 Northfield Bible Conference 가 열림
- 251 명의 전국 대학 YMCA 대표들이 참석
 - P. T. Pierson 과 William Ashmore 는 참석한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도전함: “All should go, go to all”
 - 집회 기간 중 Ten Nations Meeting(해외 선교 기도 모임)이 열림: Japan, Persia, Native America, Siam, Germany, Armenia, Denmark, Norway, China, India 등
 - 집회 마지막 날 100 명의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서원서(Student Volunteer Pledge for Foreign Missions)에 서명함으로써 Mount Hermon 100 이 탄생함 (이 중 24 명이 Mt. Hermon 학교 출신임)
 -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이 탄생함 (대표: John Mott)
 - 이 집회에 William J. Hall (Rosetta Sherwood Hall 의 남편, 의료 선교사), Robert A. Hardie (원산대부흥의 불씨를 피운 선교사), James S. Gale (한국문화와 한글을 세계에 알렸던 선교사), Avison (초대 세브란스 의전 학장) 등이 참석함

- 집회 후 Luther Wishard, Charles Ober, Robert Wilder, John Mott 는 각 학교를 다니며 학생들을 동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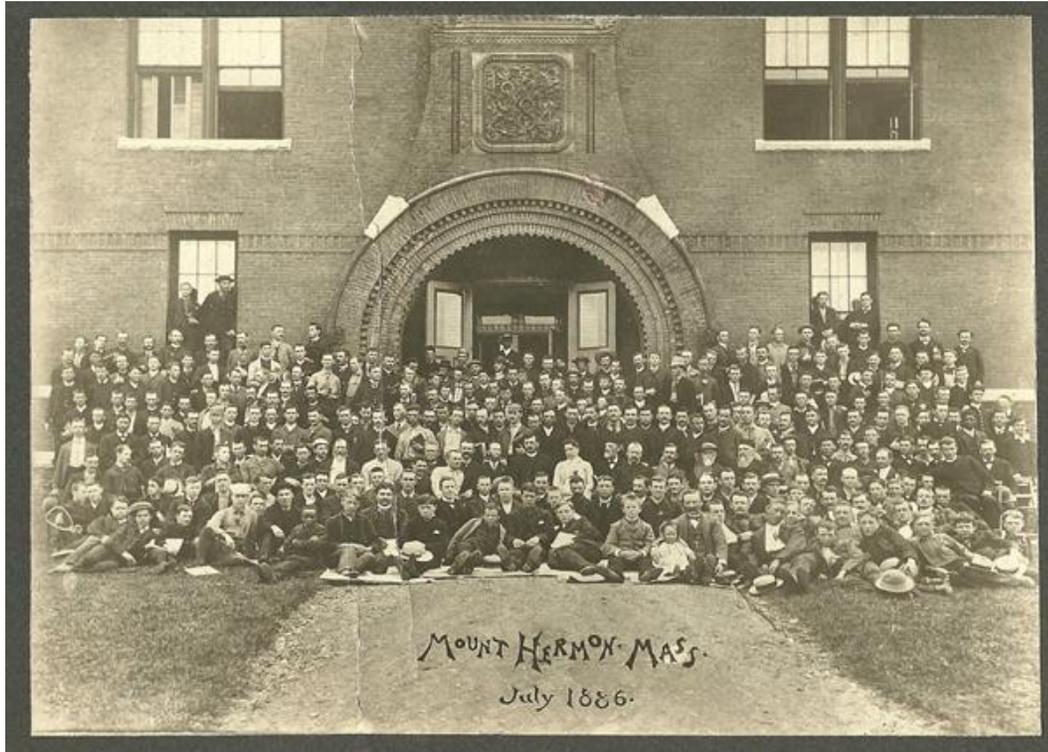


Figure 15. Mount Herom 100

- 5) 1888 년 '세계선교를 위한 학생자원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s: SVMFM)'이 정식으로 조직되어 SVM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함
 - 표어: "이 세대에 전세계의 복음화를"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 이후 1891 년까지 6200 명의 자원 학생 중 352 명이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되었으며, 가장 절정의 시기였던 1920 년에는 2783 명의 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였고, 1921 년 637 명의 학생들이 세계 선교지로 파송됨
 - 1910 년까지 약 300 여명의 SVM 선교사들이 한국에 파송되어 한국 복음화에 큰 공헌
- 6) Student Volunteer Movement Quadrennial International Convention 이 1891 년부터 1940 년까지 13 차례에 걸쳐 개최됨
- 7) SVM 을 통한 세계 선교사 파견 현황 (1923 년 기준): 총 10, 309 명의 선교사가 세계로 파송되었고, 404 명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파송됨

4. 학생자원운동(SVM)과 한국 복음화

1) SVM을 통해 세워진 선교사

- Samuel Zwemmer: 회교도 선교의 선구자가 됨
- Robert Speer: 한국에 SVM 출신 선교사들을 파송, 평양대부흥 및 한국 기독교 부흥에 도움
- Samuel Moffett: SVM 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최초 선교사
- William J. Hall: Rosetta Sherwood Hall 의 남편, 의료 선교사
- Robert A. Hardie: 평양대부흥의 불씨를 피운 선교사
- James S. Gale: 한국문화와 한글을 세계에 알렸던 선교사
- O. Avison: 초대 세브란스 의전 학장

2) 한국으로 파송된 대표적인 선교사들

무디의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맥윌리엄스(Daniel McWilliams)는 맨하탄 고가열차 재무담당 이사이며 브루클린 YMCA 설립자 겸 회장으로, 선교사 언더우드의 형 John Underwood 장로와 같이 브루클린 소재 라파엣 (Lafayette Avenue) 장로교회 장로 및 PCUSA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이 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조선에 파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우리나라 선교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는 1884년 PCUSA (미국장로교) 선교위원장 엘렌우드(F. Ellenwood)에게 조선 선교를 시작할 것을 제의하며 기금 \$5,000 (오늘날 50만 불에 해당)을 기탁하여 우리나라의 최초 선교사 알렌(Horace Allen) 부부 및 초창기 선교사 입국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 **Horrace Allen:** 중국 선교사였다가 1884 조선에 입국하여 광혜원(재중원→연세의대)을 건립함. 조선왕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기독교 선교사들을 박해로부터 많이 보호해줌
- **Horace Grant Underwood:** 1885 년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입국, 제중원에서 교사로 활동함. 성서 번역 위원회 초대 위원장, 대한기독교서회 회장, 한국 기독교 교육회 회장을 역임하며, 예수 교학당, 서울 구세학당,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를 건립하였고, 첫 장로교 교회인 정동교회(현 새문안교회)를 설립함. 1990년에는 개신교 양평동 교회를 설립함

- **Henry Gerhard Appenzeller:** 감리교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임명받음.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을 세워 이승만, 김소월, 나도향 등 많은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감리교회를 설립함(1887년 10월). 1887년 마가복음 단독 번역, 조선그리스도회보 창간, 성서번역 위원회 조직 등으로 헌신함. 1902년 배 침몰 사고 때 조선인들을 구하다가 45세의 나이로 순교함
- **Robert Alexander Hardie:** 1890년 조선에 입국, 제중원에서 교사로 섬김. 1892년 의료선교활동을 시작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함. 1903년, 자신의 교만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원산 부흥운동을 일으킴
- **James Gale:** 1888년 부산, 조선에 입국하여 1928년까지 약 40년간 한국에서 선교
- **Oliver Avison:** 1892년 언더우드의 제안으로 1893년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입국함. 1916년 언더우드가 사망한 후 조선기독교학교 교장으로 취임함. 두 아들 역시 한국에서 선교사로 섬김
- **Samuel Moffett:** SVM에서 한국으로 파송한 최초 선교사. 평양대부흥의 중심지가 된 장대현 교회를 설립(1893)하였고, 최초로 평양에 장로교 신학교를 설립(1901)하여 길선주 등 7명의 초대 한국인 목사를 양성함. 송의여자학교 설립 및 학교장을 역임함. 한국에 온 SVM의 대표적인 선교사로서 46년간 한국을 섬김
- **Malcolm Fenwick:** 1889년 인천, 조선에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함. 1873년 교회가 없는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원산으로 옮겨간 이후 약 250교회를 개척했고, 두만강과 시베리아에까지 교회를 세움.
- **William Swallen (소안론):** SVM 대표(대학교 및 신학교)로 Northfield 사경회와 세계대회에 참석한 대표적 선교사. 안락장터의 깡패 김익두를 목사로 변화시킨 선교사. 평양선교부 개척의 공로자. 1905년 을사조약으로 희망을 잃은 우리 민족에게 '하늘가는 밝은 길이'(찬송가 545장)를 작사하였고, 성경 공과공부를 시작함.
- **Graham Lee (이길함):** 평양대부흥 본산지 장대현교회 담임목사로 길선주 장로와 대부흥에 헌신함
- **William Baird (배위량):** 최초의 대학 송실대학 설립 및 초기 기독교지도자 양성에 큰 공헌을 했으며 부산, 대구 선교부를 개척함으로써 이후 처남 안의와가 대구 복음화에 크게 기여함.
- **William Blair (방위량):** 소안론에게 동원되어 조선에 온 평양대부흥 당시의 장대현교회 목사로 당시의 상황을 "오순절 (Pentecost)성령 강림"이라고 표현함. 한경직 목사의 미국유학을 주선하는 등 한국 복음화의 많은 공헌을 하였다.
- **James. E. Adams (안의와):** 매형 배위량이 개척한 대구선교지를 물려받아 대구 복음화의 선구자가 된 안의와는 대표적인 SVM 선교사로 대학시절 Iowa, Indianan 주

순회선교사로 임명되어 각 대학을 순회하며 선교사를 모집하였고, 그 자신 역시 SVM 선교사로 파송되어 1894년 조선에 입국함. 1898년 그의 집에서 시작한 예배가 대구 제일교회의 창립으로 이어짐.

- **William James Hall:** 1892년 평양 의료선교를 가장 먼저 시작했음. 같은 해 Rosetta Sherwood 와 결혼하였고, 청일전쟁의 부상자들을 치료 중 말라리라와 발진티부스로 1895년에 사망함.
- **Rosetta Sherwood Hall:** 1891년 조선에 입국하여 다음해 James Hall 과 결혼함. 1933까지 약 40년간 한국에서 의료선교를 했으며, 특히 여성과 장애우들을 섬김.
- **Sherwood Hall:** Willan James Hall 과 Rosetta Sherwood Hall 의 아들로써 뉴욕에서 결핵을 전공한 후 1926년 한국의 선교사로 입국함. 특별히 한국의 결핵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을 보고 결핵에 대한 계몽과 치료에 힘을 씀. 이를 위해 크리스마스 썰을 도입하였고, 한국에서 추방된 후 은퇴할 때까지 인도에서 결핵 퇴치에 앞장섰다가, 98세에 별세한 후 유언에 따라 그의 유해는 한국 양화진에 묻힘.

3) 한국에 온 대표적 Norfield 학교 출신 선교사

- **Georgiana Whiting:** 최초의 Northfield 선교사로서 의료선교사였음. 1890년 Northfield 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마친 후 1895년 SVM 선교사로 자원하여 조선에 입국, 광주지방 첫 순교자 C. C. Owen (오원; 의사겸 목사) 선교사와 결혼함. 쓰러진 남편 Owen 선교사 (1909년 4월 순교)에게 가던 중 만난 나환자를 치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한국 최초 광주나병원 (애양원의 전신)이 설립됨. 이 곳에서 손양원 목사의 순교까지 이어짐. 이후 20여년을 계속하여 조선에서 선교 사역에 헌신함.
- **Frank Marion Brockman:** 한국 YMCA 부흥운동의 선구자. 1896년 Northfield Mt Hermon 학교 졸업 후 1905년 조선에 입국. 한국의 차세대 리더들을 위한 YMCA 창설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초창기 YMCA 를 통해 이상재, 윤치호, 유성준, 김정식, 신흥우 등 한성감옥에서 이승만에게 전도받은 독립협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와서 중심 세력을 구축하게 됨. 건강의 악화로 51세 되던 1929년 6월 10일 Princeton (NJ)에서 눈을 감음. 그의 묘비는 양화진에 있음 (묘비글: "24년간의 조선에서의 선각자, 건축자, 평화의 중재자인 친구 Frank Marion Brockman")
- **Sherwood Hall:** 한국 결핵퇴치의 아버지. William 과 Rosetta Hall 선교사의 조선에서 태어난 외아들 Sherwood Hall 은 평양외국인 학교를 마치고 Northfield Mt Hermon 학교에 입학. 재학 시 SVM 로 활약하며 John Forman 의 아들, Baird, Swallen, Wells,

(Moffett 은 뒤에 합류), Hardie, Adams, Miller 등 초창기 SVM 의 대표적 선교사들의 자녀들과 함께 학교를 다님. 이후 그가 '이모'라고 부르던 어머니 Rosetta 의 조수 김점동이 최초의 여성 의학박사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의료사역을 하다가 결핵으로 순직하자(1910), 그는 결핵전문 의사가 되어서 조선에 다시 돌아와 당시 사망률 1 위였던 결핵퇴치를 위해 힘썼음. 부모인 William James, Rosetta Hall 과 동생 Edith Margaret, 태어나면서 사망한 아들 Frank Hall 과 함께 양화진에 묻힘.

이 외에도 숭실대학교 창립자 배위량 (William M Baird) 선교사의 세 아들, 대구 제일교회 창립자로 대표적인 SVM 선교사였던 안의와 (James E Admas) 선교사의 두 아들, 청주 복음화의 개척자 민노아 (F. S. Miller) 선교사의 세 자녀, 평양선교부이자 SVM 학생대표였던 소안론 (W L Swallen) 선교사의 세 자녀, 한국복음화의 선구자이자 평양 장대현교회와 최초 신학교 설립자였던 마포삼열 (Samuel A Moffett)의 장남 James Moffett, 배재학당 설립자이자 한국에 파송된 최초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HG Appenzeller)의 막내 딸 등이 Northfield Mt. Hermon 학교를 졸업했다.

4) 한국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

• 원산부흥운동

- 원산과 기독교: 1892 년 James Gale 이 처음으로 선교활동을 시작.
- 같은해 Hardie 선교사가 Fenwick 선교사와 함께 사역 시작
- 1903 년, Hardie 선교사가 선교의 실패 원인을 자신의 '교만과 강박함, 믿음이 부족'한 연고라고 선교사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자 이 회개에 감명받은 다른 선교사들과 교인들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함으로써 부흥 운동이 시작됨.
- 특징: 강력한 죄의 회개

• 평양대부흥운동

- 1906 년 8 월 26 일부터 9 월 2 일까지 평양 선교사 사경회가 개최됨
- 이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부흥 사역에 헌신함
- 1907 년 1 월 2-15 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평안남도 도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의 공개 회개를 통해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

- 1907년 9월 평양신학교 제 1회 졸업생 배출 (서경조, 한석진, 양전백, 길선주, 이기풍, 송린서, 방기창): 7명의 졸업생은 최초의 한국인 목사 7인이 됨
- 평양대부흥은 놀라운 영적 각성운동이었고, 사회개혁을 동반했으며, 놀라운 교회 성장과 해외선교운동을 이끌었음

5) “지금 우리는...”: Northfield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

- 지난 2005년 Northfield Campus가 폐쇄된 이후로 매년 이곳을 방문하여 이곳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세계 선교를 향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피어오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 부흥의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다.
-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는 40여명의 목회자가 함께 모여 이러한 역사의 발걸음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의 일을 함께 기도하는 컨퍼런스를 진행하였다.



Figure 16. 2007 Northfield 목회자 컨퍼런스

- 지난 2007년 5월 10 Days of prayer에 유일한 타민족 교회로 참석하여 이 지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다.

- 지난 2018 년 10 월 “The launch and rededication of the Moody Center in Northfield, MA” 행사에 초청을 받아 방문하였고, 이곳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다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



Figure 17. “The launch and rededication of the Moody Center in Northfield”에서
(Moody Center CEO Rev. Emmitt Mitchell 과 시카고 무디교회 원로목사 Rev. Erwin W. Lutzer 와 함께)

지난 2005 년터 지금까지 해마다 이곳을 방문하며 계속하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이곳의 Moody Center 와 동역을 이루어가고 있다. 창세기 26 장을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 우물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던 우물이었다. 우물은 “말씀”을 의미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방해와 그로 인한 타락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단이 방해하고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삭이 다시 판 우물은 부흥(Revival)을 의미한다. 이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이루셨던 것들을 우리를 통해 다시 하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 무디의 Legacy 를 Rebuild 하고, Northfield Bible Conference 를 Revive 하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Restore 되기를 기도한다.



Figure 18. Northfield Campus Auditorim 앞에서

5. 결론

당시 많은 미국의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이 Moody의 제 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직간접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이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SVM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다. SVM은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해외선교 1위 국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선교의 지도가 바뀌게 될 정도로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러한 운동이 바로 Moody가 설립한 Northfield Campus에서 시작되었다. Northfield 학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어떤 교직원도 학교의 담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가지고 교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성경에 기반한 학교를 운영하였다. 무디가 학교를 설립할 때의 목표는 ‘Gap-man’ (겔 22:30)을 양성하여 비록 ‘직업적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지만 각자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YMCA 일꾼이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도시의 전도사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군이 되는 ‘신실한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모든 학교 건물과 시설의 모퉁이 돌에는 성경 말씀이 세워져 있었다. 이것은 ‘학교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분들려 있음’의 징표가 된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SVM의 상징인 Northfield 사경회(Northfield Bible Conference)는 일반 사경회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무디 서거 및 초창기 학교 지도자들의 은퇴 후 새로운 이사회

및 교직원이 유입되는 1930 년대를 기점으로 성경말씀에 근거한 학교 운영방침이 세속화 되면서, 1950 년대 후반부터는 필수과목이었던 성경이 선택과목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후 1972 년 남녀 두 학교가 하나로 통합되었고, 1975 년부터는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학교 예배가 선택으로 바뀌었으며, 같은 해 SVM 이 태동했던 건물 The Recitation Hall 이 화재로 사라지고 말았다.

결국 2005 년 Northfield Campus 는 전면 폐쇄되었고, 학교는 Mt. Hermon 한개의 campus 로 이전하였으며, 말씀에 기반했던 학교 설립의 취지는 사라진 채 '다양한 문화, 가치관, 종교, 인종'을 지향하며 세속적인 학교로 변질되고 말았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일꾼들을 동원하시고자 하는가? 바로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분의 목적에 동참하도록 만드셨다. 구약시대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으로써 모든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셨고,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제자된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주셨다(마 28:18-22; 막 16:15; 행 1:8).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오셨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원의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였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하고 계신다. 과거 Moody 의 Northfield Bible Conference 를 통해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고 그 지역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점점 암흑으로 사라져가는 이곳 Northfield 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속해있는 지역들이 다시 그 목적과 근본 정신을 되찾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곳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